

우리나라 디자인 도입에 관한 사회경제사적 고찰

- 디자인의 한국적 개념의 정착을 위한 시론 -

A Social Economic Comparative Study on Appearance Background of Design
- for Native Settlement of Design in Korea-

이 인 자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II. 디자인의 발생과 역할

1. 디자인의 개념
2. 디자인의 발생과 자본주의의 발달
 - 1) 그리스·로마문화의 특성
 - 2) 자본주의의 발생 배경
 - 3) 대량생산과 광고의 발생
 - 4) 디자인의 역할

III. 한국의 디자인 도입과 발전

1. 자본주의의 도입과 배경
2. 서양문화의 수용과 서구·디자인의 확산

IV. 전통의 확립과 디자인의 토착화

1. 한국의 전통의 뿌리
2. 민족원형으로서의 미의식
3. 디자인의 토착화의 모색

V. 결론

논문요약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설계·계획'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단순히 꾸밈이라고 하는 장식적 기능 면에 국한된 의미이지만,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대의 현대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데 곧 미적인 측면과 효용성 내지 유용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적인 측면이라 함은 소비대중의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효용성 역시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디자인의 마땅한 과제요, 실천적 숙제라고 생각된다.

디자인의 발생은 자본주의적 배경 속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라 함은 서구적 정신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서구적 사고와 행동의 양식이다.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를 거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생한 경제체제였는데, 이러한 경제사상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사회형태를 필수조건으로 배태된 것이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Polis에서 연유한 것이며, 고대 그리스·로마의 사회는 귀족과 노예의 사회제도 속에서 성장한 사회제도였다. 헬레니즘을 밑바탕으로 하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확장의 적극적인 영토 확장주의에 의해서 Polis는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연원으로 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는 종교·사회 내지 정치 통합을 이루고 자본주의 정신을 완성시켜 나간 것이다.

우리의 디자인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직수입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의 원형이 우리의 경제체제가 되었듯이 우리의 디자인도 서구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민족적 심성의 원형과 뿌리가 다른 우리의 전통문화와 감성이 이러한 이질적 전통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됨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심성과 전통의 뿌리를 찾고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 사고와 style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소중한 과업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e dictionary defines the word 'Design' as planning and designing. Though this is a meaning confined to decorative function, the conception of modern design in this capitalist society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can be said to have reached a new stage of the meeting of industry and the arts. This means the two sides of design: the side of beauty and usefulness. The side of beauty should be understood in view of the sense of beauty, and usefulness should also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taste and preference. This is thought to be the natural problems of design. The origin of design can be understood from the background of capitalism. But the capitalism can be said to be the mode of Western thought and action

developed based on Western thinking. The capitalism is an economic system derived from the society of industrial capitalism through commercial capitalism, but this economic thinking has been resulted from a mature social system of democracy and civic society. The civic society and democracy are derived from polis of ancient Greece and Rome, and the ancient Greek and Roman society was a society developed from the social system of the nobility and slaves. Polis continued to develop based on the positive territorial expansionism centering around the Mediterranean on the basis of Hellenism, and European countries achieved the intergration of religion, society and politics based on this, thus accomplishing the spirit of capitalism.

Our design is believed to have been derived from the direct import of Western capitalism. Accordingly, as the original form of Western capitalism has become our economic system, so our design copied that of th West. And our traditional culture and sensitivity which are different in the original form and root of racial disposition seem to breed discord between them.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for us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seek the root of our disposition and tradition and grope for the appropriate thought and style of design.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양의 문명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정신문명을 근본 토대로 하는 동양의 문명은 이미 그 힘을 상실하여 고고학적 유물로 전락한 느낌이며, 물질의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문명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무력화시키며 점거해 가고 있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미국의 문명은 그 역시 위대한 힘을 과시하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열등한 저급문화로 추락시키며 점거하여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는 한국의 방방곡곡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게 되어, 사멸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문명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화는,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미점령군이 한국에 진주한 때를 비롯하여 1950년 한국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이후 1961년 박정희 정권의 소위 새마을 운동과 함께 근대화 및 서구자본주의의 적극적인 도입에 의하여 서구문화에 종속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는 서양문화에 일변도적으로 경도 되어 서양문화 제일주의, 우선주의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의하여 물질우선주의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정신우선주의의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고, 인간의 심성마저 서구적 사고 일변도로 흐르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에 디자인이 도입된 시기는 명확히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근대적인 디자인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이 발생하고 발전해 나갔다고 전제한다면, 1945년 전후로 어림잡는 것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대량매체와 함께 성장한 디자인은 서양문명의 테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종속되고 추종하면서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이 상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장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종 소비자 심성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민족감성을 촉발시킴으로 심리적 안정성과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담당자들은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거나 도외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서구적 감각의 디자인을 맹종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성을 제기하고 이를 논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디자인의 토착화에 있다. 토착화란 문화적 배경의 이질적 요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화적 배경의 이질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설정함으로써 그 논리의 근거를 삼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은 자본주의를 모태로 하여 발생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디

자인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한국의 자본주의의 도입과 성장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가 괴멸되고 서구문화에 종속되는 과정을 밝히고, 따라서 그 문화적 근원이 다른 두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적 자본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디자인 사고의 모순성을 드러낸다.

셋째, 한국의 전통문화의 근원을 개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근원과 민족적 심성을 제시한다. 다만 이 부분은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며 다음 논문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적 디자인이 우리의 심성과 괴리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디자인의 토착화의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여러 분야 중 시각디자인을 위주로 하여 논구할 것이며, 특히 광고 디자인의 범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게 될 것이다.

II. 디자인의 발생과 역할

1.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설계·계획'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디자인을 '도안'이라고 한 때가 있었는데, 그 용어는 한국의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에 의하여 번역 사용된 용어였다.¹⁾ 도안이란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디자인이 단순히 꾸밈이라는 장식적·기능적인 면에만 부각시키는 의미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현대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디자인이란 라틴어의 Designare에서 온 것으로 '계획을 기호로 명사한다'는 어원을 갖고 있다.²⁾ 따라서 디자인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우는 일련의 행위개념을 말하는 것이다.³⁾ 이때 일정의 목적이라 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산업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미적인 측면과 효용성 내지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제품의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표리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도 하다. 시장성 확대는 소비대중의 기호에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인 반면, 미적 또는 효용성의 문제는 예술적 측면에 더 큰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디자인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소비대중사회에 있어서 디자인의 커다란 과제요 실천적인 장이기 때문에 소비대중의 기호와 선호도에 디자인이 기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숙명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현대 디자인의 예술적 감각이라 함은 소비대중의 기호와 감각에 적용하고 설득하는 양 측면을 절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주요 과제는 구체적으로 미(美)와 용(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⁴⁾ 할 것인데, 미는 디자인 담당자의 몫이고 용은 사용자의 몫이라 하겠지만 그 '미'의 감각은 역시 소비자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고 쾌락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그 디자인의 효용을 잃고 사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은 미와 용 그 어느 것이나 사용자, 곧 소비대중의 정신적 내지 심리적 적응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곧 토착적 문화 심성이 디자인 근저의 핵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디자인의 발생과 자본주의의 발달

디자인은 상업자본주의와 직접 연관을 맺고 발전한다. 소비자 없는 디자인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시장을 생각하지 않는 디자인이란 예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독백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근본목적이므로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발생에 대한 배경을 분석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자본주의의 발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발생지는 유럽이었다. 자본주의는 14 - 15세기 유럽의 봉건사회를 모태로 짝이 텃는데 지중해 연안의 몇몇 도시들은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드러낸 본거지였다.⁵⁾ 이 도시들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방무역의 중추로서 지중해를 거쳐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중추였다. 이들 상업도시들은 11세기 이래 점차 발흥하여 남유럽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되었다. 그곳에는 상업과 수공업 작업장이 즐비하였으며 항구를 드나드는 배들은 매우 빈번하여 상업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유럽의 도시는 베니스를 비롯한 그리스·로마의 사회는 기원전부터 이미 Polis라고 하는 도시문명을 발전시켜 문명의 꽃을 피우며 민주정치에 의한 거대한 식민정치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시민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미 고대 그리스·로마의 사회로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내재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산업혁명이 발생함으로써 그 싹이 텃다고 보는 것이 옳바른 인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리스·로마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고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정신과 그 토양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본다.

1) 그리스·로마문화의 특성

그리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원숙한 문화와 민주정치의 확립에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민의 경제적 번영에 수반되는 정치활동과 정신활동에 기반을 두는 것이었다.⁶⁾

그리스인의 정치경제적 특성은 노예경제체라고 하는,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박고서야 비로소 그 광채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리스인은 경제활동에의 직접참여를 천시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 성립의 소지는 당초부터 당연한 것이었다.⁷⁾ 그리스에서의 노예제도는 피정복자와 영세농민이 노예로 전락하고 여기에 다시 해외에서 구입한 노예가 첨가됨으로써 그리스 경제에 자동적으로 풍족한 노동력을 확보하였고, 시민들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나 학문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시민은 노예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생업에서 해방되었고, 정신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온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 땅은 서지중해를 깊숙이 뻗어나온 반도로서 당시로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몸젠(Mommsen)에 의하면 그 지형 자체가 시실리섬을 발판으로 삼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으로, 말하자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⁹⁾ 해안선의 굴곡이 적고, 그리스와 등지고 있는 지형은 알맞은 기후와 더불어 해외에의 진출과 더불어 상업활동에 가장 적합한 여건이 되었다. 이러한 지형학적인 여건 속에서 그리스·로마는 시민국가 형성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말하자면 해외의 진출로 광대하게 확장된 영토와 국가, 식민지는 한 사람의 황제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을 통치하는 길은 도시국가로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귀족에 의한 귀족정치를 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로마의 공화정(共和政)은 이러한 로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귀족에 의해서만 전횡적으로 재단되던 초기 로마의 지배체제는 시대의 흐름 및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결코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었다.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로마에 있어서도 상업상의 발전과 밀집대형의 발전은 평민들의 경제상·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하였고, 여기서 공동체의 방위에 능동적이었던 이들 시민층은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지배권에 도전하게 되었다.¹⁰⁾ 실로 공화정 수립 이후 2세기 동안은 정치권을 둘러싼 귀족 대 평민의 갈등의 시기였을 뿐 아니라 공화정 발전의 주류를 이룬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리스·로마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그리스·로마는 지정학적 특징에 있어서 당초부터 상업주의적 요소를 배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해외의¹¹⁾ 빈번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양을 면하고 있는 그리스·로마의 지정학적 특징은 해외에의 진출을 촉진시키고 이것은 곧 식민지를 확장할 충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적 사고의 특징인 제국주의적 사고는 이러한 토양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로마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이미 민주정치를 전제로 한 발전임이 커다란 장점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헬레니즘의 커다란 정신사적 배경으로서 서양문화사의 연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자본주의의 발생 배경

로마인은 뛰어난 정치적 재능과 군사력을 구사하여 유례없는 제국을 건설하고 조직에 천재성을 나타내어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그리스는 예술적 천품과 사색적 성격에 의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켜 나갔다. 로마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문화에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불후의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식민통치에 의한 군사력과 통치능력, 또는 조직력은 결국 영토확장에 따른 실용적 대응력에 의

하여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들 특유의 현실적이고 과감한 실천력은 힘과 부를 축적시킬 수 있었고, 그것은 세계를 제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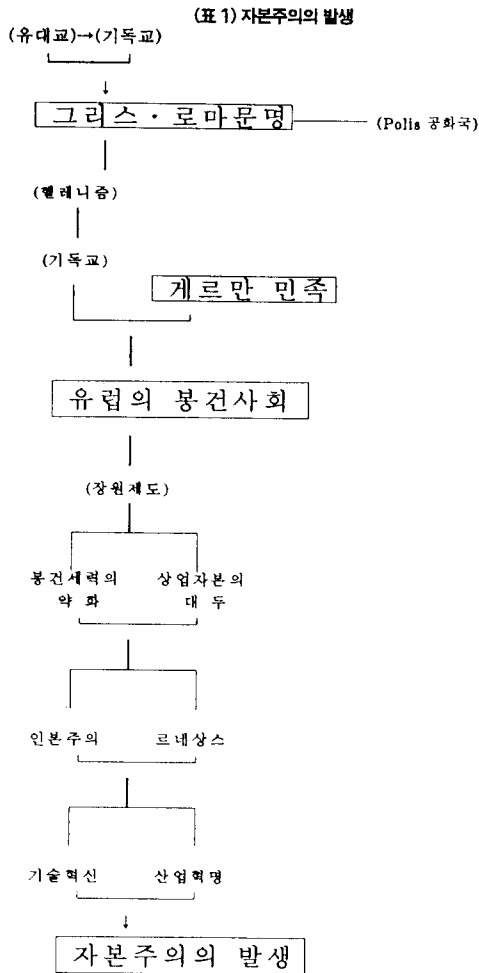
(a) 그리스도교의 발생과 발전

서양문화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독교의 발생과 발전이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모태로 하여 지중해 동쪽 연안의 팔레스틴 지방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초기에 로마에 의하여 탄압을 받았으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게 되고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로마제국의 방대한 영역이 정신적 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애초에 유대교로부터 파생한 것으로서 히브리인들의 정신사가 집약된 것이었지만 로마제국에 의하여 통합되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오랜 동안 박해와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히브리적 색채는 퇴색을 하여가고, 그리스·로마의 정신적 특징인 헬레니즘적 특징을 포용 유지하게 된 종교였다. 이러한 헬레니즘적 종교배경을 갖는 로마에 의하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고, 기독교 정치가 정치의 중심핵을 이루으로써 기독교는 커다란 정치적 힘과 교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멸의 제국과도 같았던 로마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게르만족 이동의 물결에 휩쓸리며 쇠퇴하여 갔다. 서유럽에서는 게르만 중에서도 특히 프랑크족이 발전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리스·로마적 요소는 기독교 세력과 함께 게르만적 요소가 접촉 혼합되고 중세 특유의 교권적 문화를 탄생시켰다. 로마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공고해진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은 라틴적 고전문화의 토대 위에 건설한 게르만적 요소를 융합시킴으로써 마침내 서유럽 전반을 무대로 하는 역사적 통일세계 내지는 문화적 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은 문화적 공통성과 정신적 유대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스·로마의 시대 이후는 서게르만(프랑크, 앵글로·색슨 등) 제국의 시대에 다다르게 된다. 프랑크왕국은 역시 로마교회가 동방교회와 분리되면서 로마교회와 연합을 이룩하게 되고 그로써 드디어 교회국가의 확립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정신세계와 로마의 헬레니즘적 요소는 더욱 서유럽 전반에 걸친 정신적 바탕을 공고히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발달한 유럽의 중세사회는 민족이동의 혼란 및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분업과 결합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이 장원제도(봉건제도)를 토대로 한 봉건제도였다. 봉건제도는 군사권력자들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농민들이 이에 보답하는 반예속적인 봉사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지방분권적 농업사회였다.¹²⁾ 말하자면, 관료제도와 군비를 지탱할 경제력을 잃은 유럽에 있어서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단으로서, 왕은 국토의 일부만 직접 영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에게 봉사해온 몇몇 대귀족들에게 분봉하여 통치를 분담하게 하고, 분봉을 받은 대귀족은 자신의 능력만큼만 영유하고 다시 중소귀족에게 분봉하고, 이러한 관계를 몇단계 거치므로 최종적으로는 일반 하급기사에게까지 미쳐 내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봉건제도하에서 왕권은 약화되고 영주의 분권적 권위가 지배적이었다. 이와같



이 서양의 봉건제도란 그 주종관계에 의한 동양의 그것과는 달리 사무계약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이것이 곧 후세에 유럽인이 국왕의 선제징치를 타도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러한 봉건사회는 중세 말기에 이르러 상원경제가 내부적으로 성숙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업업 및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폐쇄적 자급자족 사회를 침식, 마침내 왕원 내부의 신분관계를 뒤흔들어 놓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농민들은 영주에 예속되어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영주 역시 고정된 토지의 수입만으로는 증대하는 지출을 어쩔 수 없게 되어, 이로부터 금납에 의한 토지의 대차관계라고 하는 계약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근대적인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로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봉건세력은 붕괴하고 철저한 상업적 관계에 의한 상업자본이 대두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대등한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소위 인권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고, 14세기로부터 16세기에 걸쳐 중세적 봉건주의와 교권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 르네상스였다.

르네상스는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상시킴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가져 오게 되고, 경제적 욕구와 함께 유럽인은 세계 각처로 적극 진출하여 세계를 일체화시키고 그 무대를 전세계로 크게 확대

시키게 되었다. 르네상스는 지리상의 발견과, 종교개혁 등에 원동력이 되고 합리주의 정신과 인간개성의 해방을 통하여 유럽의 근대화를 시도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중세의 길드적 수공업과 농촌의 부업적 가내공업을 생산자가 한 곳에 모여 분업과 협업을 하는, 이른바 공장제수공업(Manufacture)을 발생시키게 되고, 독립과 영농민중에서 나온 경영자는 소규모로 농촌공업을 경영하다가 토지를 잃은 농민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하여 마침내 본격적인 매뉴팩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경영자가 발전하여 산업자본가로 되는 것이다.¹³⁾

이렇게 하여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절대왕정은 협력한 상인을 보호하여 해외무역을 촉진하고 다른 나라의 손실 또는 희생을 불가피한 현실 목표로 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는 중상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중상주의는 해외시장의 확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에 의하여 상업전쟁을 초래하고, 이러한 치열한 상업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을 통제하고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상주의는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타인 또는 타국의 희생을 요구하는 서구적 제국주의의 요소를 다분히 띠는 그리스·로마의 정신적 전통을 잇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토대 위에서 발전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혁명이라 함은 매뉴팩처에 의한 상업자본이 발전하여 대규모공장이 출현하고, 공장이 도시로 진출하므로 근대적인 공업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기술혁신을 이룩하고 대량생산의 시초가 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표 1).

산업혁명은 상업자본의 발전적 집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혁명은 기 계분명의 커다란 발전과 진전을 이룩하게 되었다.¹⁴⁾

3) 대량생산과 광고의 발생

이러한 배경을 갖는 상업자본주의는 상품의 구매·판매라는, 즉 상품의 유통과 고리대(高利代)라고 하는 화폐유통의 두 과정을 통하여 상업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이룩하게 되고 기술혁신에 의한 대량생산의 공장혁신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의 발생은 두 개의 신흥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자본가계급(Bourgeoisie)과 상공업계급,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임금노동자계급, 즉 무산계급(Proletariat)이다.

거대한 자본가의 대두는 대규모 공장을 출현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상호 상승 또는 역학관계는 긴밀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라 제조업자 내지 상품판매자는 제품 또는 상품의 고지(告知) 내지 선전을 영위할 필수 과정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과학문명에 힘입은 기술혁명은 매스컴을 발전시켜 광고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광고란 '목적한 제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단순한 국어적 의미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어떤 영역의 사람에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매체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매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러 경

로의 매스컴인데, 어쨌든 광고란 한마디로 요약하여 판매촉진의 한 수단으로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구매의욕을 촉발하기 위한 판매전략의 한 수단인 것이다.¹⁵⁾ 따라서 광고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학문으로 발전이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디자인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4) 디자인의 역할

디자인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은 'Design for Life'¹⁶⁾ 즉 인간을 위한 설계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사람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디자인은 그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 안에 생활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구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구행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Marketing Area, 즉 소구대상 지역의 사회 관습이나 습성·욕구의 형태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바꾸어 말하면 문화에 적용하는 수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적 토양과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온 서구의 디자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당위성도 이로써 명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의 디자인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의 디자인의 도입과 발전은 명확한 학문체제로 정립된 것은 아직 없다. 따라서 정확한 학문적 근거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나타난 근거에 의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디자인이 도입된 것도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 식민주의 시대에 일본인을 통해 들어왔으며, 일본인들은 디자인을 '도안'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¹⁷⁾

그후 1945년 8·15 식민지시대가 종식되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하면서 서구의 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한홍택에 의하면 이때 대한미술가협회(산미협회)가 발족함으로써 한국의 디자인계가 성립되었고¹⁸⁾ 이들의 활동은 국내 최초로 시각디자인을 도입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격적인 디자인이란 자본주의의 성립이 전제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디자인의 발생과 발전도 그 역시 한국의 자본주의의 도입과 발전에 연계되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자본주의의 도입과 배경

자본주의의 생성과정은 봉건사회의 해체이행 과정이다.¹⁹⁾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공업자-자본가'의 이행과정을 거치는 '상인-자본가'의 이행과정을 거치든²⁰⁾ 자본축적을 위한 산업자본이 형성되는 때를 자본주의의 성립시기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시대는 농업 위주의 봉건 사회체제였다. 고려시대로부터 그 이전의 오랜 세월이 걸쳐 우리의 정신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불교정신과 조선시대에 커다란 사회정치 체제로서 지배해 왔던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정신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조선시대의 상공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에 의하여 서학(西學)이 일어나게 되고 천주학이 비록 큰 박해 속에서나마 일부 서민층을 위시하여 수용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세력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순수한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우리나라의 17, 8세기에는 확실히 전통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태동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²¹⁾ 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동기요, 태동에 불과한 것이었지 발아의 단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 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개화파의 변절을 초래하고 서구문명의 유입을 차단하게 되었다. 물론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하여 조선도 개항을 하여 유럽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자본주의의 성립요건인 근대화에는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시민계층의 성장이 미약했고 자본면에서 미약하여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²²⁾

서구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세 시기로 확정하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²³⁾ 그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진주한 미군정에 의한 서구적 경제자유정책과 1950년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의한 서구문화와 자본의 유입이며, 그 또 하나로 1961년 박정희 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경제개발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혁신적이고 본격적이며 가장 서구적 대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시작은 1962년에 비롯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기간산업을 육성한다는 경제정책에 의하여 군사통치적 강력한 통제정치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므로 대기업지주의 자본화, 자본의 집중화가 이룩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은 크게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서구적 자본주의를 그대로 모방하여 산업과 대기업 위주의 자본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서구적 문화배경을 갖지 못한 한국에 있어서는 문화적 갈등과 모순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서양문화의 수용과 서구 디자인의 확산

동양과 서양은 위에서 논술한 바와같이 문화의 전통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자본주의의 배경과 기본정신은 서구적 전통 속에서 배양되고 성장되고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풍토의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 그러한 자본주의 가치관과 사고양식은 한국인의 감성과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도입은 가치관을 변형시켰다.²⁴⁾ 한국의 개발독재에 의한 자본주의의 도입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였고,

서구적 생활양식을 강요당하여 우리 문화가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에 의한 서양양식의 생활양식은 서구자본주의에 수반되어 홍수처럼 밀려들어온 경제형태에 의하여 그것은 합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디자인은 서구화의 일방적 통행로를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과 미적 감각은 낙후되고 사멸시켜야 할 것으로 전략해 버리고, 서구적 양식의 생활과 가치관, 미적 감각만이 오로지 우수한 것으로 맹종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디자인의 양식은 제품의 서구화와 생활양식의 서구적 모델에 의하여 서구적 감각을 추종해야 하는 것으로 아무런 이의의 제기도 없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세련되고 편익한 것이기 때문에 서구 디자이너의 감각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일류의 디자이너로 각광을 받는 통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이러한 통례는 반드시 디자이너만이 책임질 일은 아닐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의 전통적 자본주의의 사회가 대중의 감각과 가치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제품의 생산자가 이러한 서구적 감각과 가치관을 선도해 나가는 데 더 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디자인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그 감각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서구적 감각의 제품에 동양적 감각의 시각디자인이란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란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시각을 주도해 나가는 사회적 역할의 책임자로서 서구적 디자인의 행위를 맹종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뿌리깊이 내려 있는 심성의 원형을 존중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내재한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촉발시켜 구매를 촉진한다는 디자인 본연의 책무를 제삼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Ⅳ. 전통의 확립과 디자인의 토착화

1. 한국의 전통의 뿌리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 근원은 무엇일까? 수학사이며 한국의 민족신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저술을 낸 김용운은 <원형의 유혹>이란 책에서,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는 그 민족 고유의 기본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민족원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²⁹⁾고 말했다. 이어서, "그것은 긴 역사의 축적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있어서도 사회의 모든 현상에 나타나기 마련이다"³⁰⁾라고 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한국의 문화내용을 깊이 관찰한다면 한국원형의 일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자연주의 그리고 명분주의적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³¹⁾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우리 민족의 원형을 찾는 일은 우리가 시도하는 전통의 회복과 토착화의 모색에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전통 또는 그 원형을 찾는 일이란 그렇게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논구되고 검토되고 검색이 되어 차츰차츰 밝혀 나갈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짧은 논문에서 그것을 완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 이러한

논구는 다시 나누어 별도로 큰 과제로서 논구할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해 나갈까 한다.

2. 민족원형으로서의 미의식

전통적 미의식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대신화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찾아봄으로써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화란 고대인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생활감정이기 때문이다. B. Malinowski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신화의 근원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미개사회에서 나타나는 신화, 즉 이원적인 형태의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이다."³²⁾고 고대신화의 세계는 그만큼 고대인의 생활의 모습과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단군신화에서 살펴보자. 단군신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백색이다. 환웅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곳인 신시(神市)가 태백(太白)인데, 태백은 곧 白, 白은 暁, 暁은 밝음, 밝음은 태양을 의미하고³³⁾ 또한 빛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신화에는 흰말(白馬)이 나타나고, 김알지의 신화에 흰닭(白鷄)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옛 신화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짙다. 옛날에는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할 정도로 흰 옷을 좋아했고, 산(山)이나 지명에도 흰 백(白)자가 들어가는 곳이 허다하다. 백산(白山)은 성산(聖山)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백산(太白山), 소백산(小白山), 장백산(長白山), 백운산(白雲山), 백마산(白馬山)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潯)은 '백(白)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종교사상 내지 전문화(專文化) 과정의 핵심'³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는 난생(難生)설화가 많다는 사실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등간 여섯 개의 황금알, 식탄해의 난생설화 등 많은 설화에 의하여 난생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형(圓形)에 대한 심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은 고어에서 '태양'³⁵⁾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태양은 '밝은 빛'이란 뜻에서 흰 백(白)의 '밝은 빛'과 공통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밝'은→'빛'→'해'→'원형'으로 동일한 심성(心性)의 원형(原型)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흰색과 난형은 태양과 함께 순수성과 근원성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마음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신화에 의하여 백색과 원형이 우리의 심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면에는 여러 학자들이 밝힌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 미의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고찰해볼까 한다.

1) 조지훈

조지훈은 <한국문화사서설>³⁶⁾에서 한국 미의 특징을 소박미로 논구하고 있다. 사실 '소박미'는 우리 예술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미란 소박한 아름다움이란 뜻이다. '소박'이

란 사전적 의미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대로임'인 것인데, 이 뜻은 바꾸어 말하면 '자연스런 그대로'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런 그대로란 '자연 그대로'에 사람의 손으로, 곧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인데,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드러내는 예술미가 곧 소박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우리 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어떤 의미에서 서양의 예술과 우리의 예술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의 차이이다. 우리의 건축에 나타나는 '자연을 닮은'³⁵⁾ 건축 기법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해미 개심사의 '대웅전'은 소박미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기하학적이고 도형적인 선과 포물선에 비해 우리의 예술에 나타나는 선과 포물선은 선과 포물선이되 서양의 기하학적이며 도형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선과 포물선인 것이다. 조선 백자의 선이 그것이요, 우리 옛집의 추녀의 선이 그러한 포물선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화의 발전은 자연에서 인공과 가공을 가하는 발전의 역사를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문화는 자연을 극복하여 인간이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로부터 기계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계적인 규격화의 시대에 서양의 기하학적인 도형사상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양의 심성이고 사고일 뿐, 우리가 그러한 사고의 규격에 맞추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소박미는 우리 예술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영원한 우리 예술인의 과제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2) 고유성

고유성은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조선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 문제'³⁶⁾에서 한국미의 특색을 무기교의 기교로 해석하고 있다.

3) 조요한: 소박미, 해학미³⁵⁾

(가) 소박미: 노장철학의 무위자연

(나) 해학미: '적료의 유머', '어른같은 아이'로 규정한다.

4) 최순우

최순우는 <예곡최순우전집>³⁶⁾에서 한국미의 특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꼽고 있다.

(가) 순리: "억지가 없는 아름다운 사물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자세"

(나) 담조(淡調)의 아름다움: "얽고 담담한 색조의 아름다움"

(다) 익살의 아름다움: "사물의 표현에서 대담한 생각과 왜곡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다룬 솜씨와 둥근 것이 지니는 좌우대칭에 대한 무신경, 그리고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미 등은 한국공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익살의 세계이다."

(라) 고요의 아름다움: "수다스럽지 않고, 맵시나 색감이나 공간구성이 모두 그러한 공통성을 지녔다."

(마)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 "바라보아서 눈맛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한 아

름다움"

(바) 바라보는 아름다움: "코 앞에 다가 놓고 보는 것보다 물러서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러나 고유성, 조요한, 최순우의 이러한 견해도 종합하면 그 귀결은 역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서 파생되는 '맛'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자연 그 자체에서 순박함과 고요함과 넉넉함과 넉살스러움과 분수에 맞고 순리에 따르는 자유스러움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각도에 의하여 한국의 미의식의 특색을 살펴본바, 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하여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원형을 밝혀라 하거니와 이에 따라 우리의 디자인이 토착화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의 토착화의 모색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이 문화적 토양과 감성이 다른 서구적 형식과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민족의 원형을 찾고, 전통을 회복한다는 민족적 과제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며 우리 디자인이 우리의 감성의 근거를 이루는 한국인의 감성의 소구점을 찾아 판매촉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도 크게 검토하고 반성해야 할 사함을 강조한다.

서양과 한국의 감성적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극명하고 대조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현대화의 특징이 아무리 국제화요 세계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족적 고유성까지 상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민족의 얼을 찾아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디자인 감각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문화 민족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수많은 굴절의 역사를 겪어 왔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에 의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체가 약탈되어 갔고,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개항과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한 국가의 상실, 1945년 해방과 함께 진주한 미군에 의한 군정정치, 1950년 분할된 남북전쟁으로 인한 외국군의 주둔, 196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한 개발경제 등등 수없이 많은 격변을 겪어오면서 우리의 민족적 전통성과 문화전통은 거의 상실된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다. 100여 년전 개항 이후 서구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우리의 문화가 열등화, 사멸화돼 가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과 민족감성은 분명히 서구의 그것과 커다란 차별이 있는 것이다. 서양인의 기본정신은 개척정신이다. 개척정신이라 함은 자연에 대한 정복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물질적이며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의 심성은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자연과 일체를 이루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따라서 자연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경제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다. 따라서 서양인의 의식구조는 투쟁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온순하고 보수적이며, 화합을 중시하며, 투쟁적인 태도를 멀리하고 오히려 수동적이다. 음식물도 서양인은 동물성을 기호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식물성 음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서양인의 체구는 동물적이고 우람하며 골격이 장대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왜소하고 여성적이다.

표현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어 서양은 복잡한 표현원리를 위주로 하여 발전하고, 한국인은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의식구조와 표현원리를 갖고 있는 서양인과 한국인이 표현감성에 있어서 동일한 양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커다란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오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디자인을 표현영역으로 차지하는 모든 예술인들은 이러한 자각 속에서 전통 미의식과 민족의 원형을 회복하기에 모든 힘을 합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의 한 편으로서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문과 결론은 다시 편을 나누어 따로 연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통문관, 1963.
- 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 논쟁, 광민사, 1981.
- 김용운, 원형의 유혹, 한길사, 1974.
- 김필년 편역, 자본주의는 왜 서양문명에서 발전했는가, 범양사출판부, 1993.
- 명승수, 현대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하우스, 1994.
- 안림, 역사와 경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 윤원호, 자본주의 이야기, 한울, 1994.
- 임연용, 현대디자인원론, 학문사, 1994.
-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85.
- 조요한, 예술철학, 범문사, 1973.
- 조용래외 공역,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울곡출판사, 1994.
- 최병용, 최신광고론, 박영사, 1984.
- 최순우, 예곡 최순우전집 제1권, 학교세,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 동원, 1984.
- 한홍택, 한홍택 작품집.
- B. Malinowski, 榎本久역, 예술과 신화, 범정대학출판부(일본, 동경), 1973.

후주

- 1) 한홍택: 산미 30주년에 부친다. 한홍택 작품집, 1988.
- 2) 임연웅: 현대디자인원론, 학문사, 1994, p.13.
- 3) 명승수: 현대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 하우스, 1994, p.15.
- 4) 상동: p.18.
- 5) 윤원호: 자본주의 이야기, 한울, 1994.
- 6) 상동: p.42.
- 7) 한양대학교 서양사 연구실: 서양의 역사와 문화,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p.39.
- 8) 상동: p.39.
- 9) 상동: p.46.
- 10) 상동: p.47.
- 11) 상동: pp.56~168.
- 12) 상동: p.73.
- 13) 상동: p.113.
- 14) 안림: 역사와 경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pp.63~101.
- 15) 최병용: 최신광고론, 박영사, 1984, p.4.
- 16) 김성수: 정석의 디자인 교육, 월간디자인사, 월간 디자인, 1977, p.4.
- 17) 한홍택: 위의 책.
- 18) 상동.
- 19) 조용래 외 3인: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울곡출판사, 1994, p.230.
- 20) 자본주의 이행에 대한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M.Dobb 외, 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광민사, 1981.
- 21)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85, p.41.
- 22) 상동: p.42.
-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 동원, 1984, p.54.
- 24) 김필년: 자본주의는 왜 서양문명에서 발전했는가, 범양사 출판부, 1993, p.108.
- 25) 김용운: 원형의 유혹, 한길사, 1974, p.43
- 26) 상동: p.43.
- 27) 상동: p.51.
- 28) B. Malinowski 榑本久 역: 예술과 신화, 법정대학출판부(일본·동경), 1973, p.113에서 재인용.
- 29) 최남선: 불함문화론 '신동아' 1972. 1. 부록. p.107.
- 30) 상동: p.107.
- 31) 한국문화 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461.
- 32)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 탐구당, 1994.
- 33) 신영훈: 한옥의 미학, 한길사, 1985, p.57.
- 34)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통문관, 1963, pp.3~13.
- 35) 조요한: 예술철학, 범문사, 1973, p.183 p.187.
- 36) 최순우: 예곡 최순우 전집 제1권, 학교제, 1993.